

# 미래 농업 성공가도 연다

### 임실군, 새정부 국정 부합 농정과제 발굴 주력 농진청·국립농업 관련 과학원 등 현장 견학

임실군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농정과제 발굴을 위해 전사적인 혁신의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농업 관련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래농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실군은 지난 25일 농업 관련 전 부서 직원들이 참여해 전북 혁신도시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 관련 과학원 등을 찾아나서는 합동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임실군과 농촌진흥청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현장견학은 농업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와 축산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등 3개과에 직원 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지난 18일 1차 합동견학을 실시한 데 이어 이날 2차 견학을 실시하고,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정책에 맞춘 미래농업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특강과 함께 농업과학원과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을 찾아 현황 및 사업실명을 청취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내 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스마트 온실과 곤충생태원 등을 둘러 미래주도형 새농정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은 이번 합동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의 신기술과 첨단농업의 산실인 농촌진흥청과 국립과학원의 업무전반을 이해하고, 향후 미래농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한 공무원은 "우리나라 첨단농업기술의 산실인 진흥청과 주요기관을 보면서 미래농업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농업 분야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미래농업에 대비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견학은 문재인 정부에 발맞춘 새로운 농정과제를 발굴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무원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국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국내 가장 긴 메타세콰이아길 만든다

### 순창·담양군 협력 45억 원 투입 2020년까지 3년간 21km 조성 관광객 1500만 시대 도약 기대

전국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순창군과 담양군의 메타세콰이아길을 연결해 관광상품화하는 대형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순창군은 담양군과 협력해 추진하는 '전라도 1000년, 새로운 시작, 순창(순창·담양)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 사업이 국토부 공모 지역수요맞춤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 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순창과 담양 각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연계 협력하는 사업으로 도간 경계를 넘는 관광교류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담양에 조성된 8.5km 메타세콰이아길과 순창 3.2km 중간 국도 24호선에 단절된 9.6km 구간에 새롭게 메타세콰이아길을 조성해 한국에서 가장 길고 시원길, 가장 아름다운 길을 조성한다.

또 순창강천산~고추장민속마을~담양메타세콰이아길~죽녹원~담양호를 잇는 투어버스를 운영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순창고추장민속마을과 메타세콰이아길에는 관광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투어스테이션도 조성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담양의 가시문화와 순창 시조문화 등 양 지역 문화예술품을 연계하는 달빛여행 등 야간프

로그램도 공동운영하고 메타세콰이아길 볼 드라이브, 한여름밤 꿈의 미디어파사드 체험, 하늘에서 가을낙을 즐기기, 가을산림욕 트래킹 코스, 산수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체험형 관광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순창 메타세쿼이아 조성사업이 양지역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여는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주주 군수는 "순창과 담양 두지역의 메타세콰이아길을 연결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드는 이번 사업은 지역 관광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며 "두 지역 모두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N치즈, 수도권 소비자 공략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 참가 명품 브랜드 이미지 향상 주력

4년 연속 가공식품 분야 최우수 브랜드로 자리한 '임실N치즈'가 수도권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았다.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사업단(이사장 심민 군수)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에 참가했다.

외교부와 농림부가 후원하고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전북도민일보 등 전국 11개 지역신문사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문화, 의료, 뷰티 등 다양한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였다.

사업단은 청정환경에서 생산된 다양한 치즈와 요거트 등의 유제품 시식 및 판매 부스를 통해 소비자 공략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주력했다.

국내·외 바이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맛있고 재미있는 치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광객 유치와 치즈

의 고장 임실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추석 황금연휴기간 열리는 '2017 임실N 치즈축제' 전단지과 홍보 용품을 배부해 방문을 적극 유도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관람객에게 올해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를 집중 홍보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군수는 "치즈의 고장 임실 이미지 제고도 크게 기대 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노전, 망정, 학산, 물열 4개 마을에 48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하고 25일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

## 초고령 사회 노인자살 심각

### 임실, 음독자살 방지위해 관내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

농촌 고령화와 생활고, 우울증 등으로 노인 자살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임실군이 예방을 위한 세심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생명보협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사)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이 사업은 충동적 음독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있어 자살 예방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노전, 망정, 학산, 물열 4개 마을에 48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하고 25일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

신덕면 물열리 경로당에서 열린 현판식은 심민 군수, 문영두 군의장, 김경진 의료원장,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서봉원 물열마을 이장 등 4명에게 자살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발굴, 보관함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생명사랑지킴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은 지역 전체 자살사망자 중 36%를 차지하는 노인비율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정책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임실군 노인복지관·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과 노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 1회 방문과 전화 연락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 사례발굴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돌봄사업과 연계해 웃음치료 및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초고령 시대를 맞아 효심행정을 발굴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한국건설관리공 맞손 기술지원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와 한국건설 관리공사는 지난 25일 11시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이환주 남원시장, 이명훈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 체결 내용은 토목 및 건축 분야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된 각종 안전점검, 계절별 취약시설, 안전 점검, 설계도서 자문 등의 기술 지원과 안전관리, 설계 검토, 시공관리, 품질관리 등의 자문으로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긴급한 전문기술자 필요 시 전문 인력 활용, 각종 안전 점검 시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시설의 설계·준공 검사 등 전문기관의 기술적 판단을 통한 품질 향상에 기여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부실 공사를 방지하며 건설안전 사고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친환경농업 농가 확대 세미나

순창군이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은 관내의 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GCM농법 확산 보급을 위해 친환경농업마니아를 개최했다.

GCM농법은 펠라틴과 키틴을 활용하여 미생물을 대량 배양한 후 활용하는 저비용, 고품질 친환경농업 기술이다. 이날 진행된 농업기술센터 서필수 박사(순창군친환경농업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 GCM농법에 조예가 깊은 전남대학교 정우진, 김길용 교수가 관련 농법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인계면 동촌마을 최모씨는 "GCM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면, 뿌리가 튼튼해져 병해에 잘 견디고, 수확량도 거의 모든 작물에서 60~300%까지 늘어나는 것 같다"면서 "내년부터 이 농법을 시행해하겠다"고 말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GCM을 생산해 내년부터 희망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 유기농자재계(650-5614)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올 여름도 믿고 찾는 단풍미인쇼핑몰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음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음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음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모든제품 100%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 택배**로 **무료배송**

네이버, 다음에서 단풍미인쇼핑몰을 검색하세요!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문의 전화 : 080-535-4345(무료), 063-532-4345